

현 불 뉴스

국내 최대 사천왕상 집안

국내에서 가장 큰 사천왕상의 집안식이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신홍사(주지 영규)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천왕상은 높이가 4.4m(둘레 2.7m)로 지난해 4월 무형문화재정보유자 목조각공 남기실 정호석씨 등 조각공 7명이 목각 조성에 들어가 이날 사천왕 원형 1차 점안식을 가졌다.

군법당 매각 중단과 협의

국방부는 앞으로 군부대이전시 군법당의 분리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각 종단과 협의 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대이전에 따른 군법당의 철거·존속 여부가 종단의 관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종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교계 언론의 국군수도병원 군법당 의사(군속법사 허가법) 매각보도에 관련, "향후 부대이전 사업시 군법당 등 종교시설의 분리매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각 종과 관계관과 협의 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본암 특별분당사찰 요구

경북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선본암(갯바위)을 특별분당 사찰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해사는 지난 94년 개회회의에서 한시적 직영사찰로 지정된 선본암의 분당금을 중단요청에 편성하지 않고 종무회의의 결의로 임의 지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웅사 '설법환경' 세미나

육군 1군사 법웅사(주지 조길조법사)는 오는 27일 첫 지역단위 세미나를 갖는다.

'설법환경에 대해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군속 상호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한 자질 향상과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군소속 16단의 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파라미타캠프 일정 확정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지난 17일 포교연구실 수석연구원 모임을 갖고, 오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고성 팸버리수련장에서 캠프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효경사상실천의해 천명에 따른 호사상배양 지도자지침서, 문화재보호단 활동지침서, 불교수련활동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남순지장회 후원회원 모집

남순지장회(회장 김명철) 법사단장 법타스님(은해사 주지)과 김재일 후원회장(동산반야회장)은 내달부터 회원이 반수로 격감한 남순지장회를 돕기 위해 후원회원과 자매결연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연락처-(02)722-7552, 후원회 계좌번호-신한은행(324-02-160372, 김명철)

인도성지 순례 부실운영

여행사들 서비스 엉망·추가경비 요구 등 '예삿일'

"인도여행도중 3등 열차 버스 숙박시설 꼬투리까지 여행비용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엉망이어서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온 단체여행보살(광주시)은 인도 생각만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귀국시에도 태극에서 "좌석이 없다며 항공기의 빈좌석에 앉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이판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분산시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

며 예약된 방도 확인해보니 빈방이 있었어요." 최근 모여행사로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온 단체여행보살(광주시)은 인도 생각만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귀국시에도 태극에서 "좌석이 없다며 항공기의 빈좌석에 앉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이판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분산시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

며 예약된 방도 확인해보니 빈방이 있었어요." 최근 모여행사로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온 단체여행보살(광주시)은 인도 생각만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귀국시에도 태극에서 "좌석이 없다며 항공기의 빈좌석에 앉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이판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분산시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

며 예약된 방도 확인해보니 빈방이 있었어요." 최근 모여행사로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온 단체여행보살(광주시)은 인도 생각만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귀국시에도 태극에서 "좌석이 없다며 항공기의 빈좌석에 앉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이판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분산시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



한마음으로... 지난 15일 창립한 중앙신도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中信會 창립 "신행 중심축 다짐"

송재건씨 회장 선출

조계종의 신대표조직인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정식 출범했다.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및 직능단체 대의원,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총무부장 혜상스님 등 2백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했다. 송재건씨(59·직할교구신도회장, 중앙신도 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총재인 월주스님과 송희정씨에게 일임하는

한재건씨(직할신도회 부회장) 민병준씨(세무사불자회장)를 선임했다. 중앙신도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리와 자유 평등 평화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송희정씨는 인사말을 통해 "호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제도종성의 길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송희정씨는 또 "조계종단과 중앙신도회가 정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턴뷰 4면) 중앙신도회가 창립됨으로써 재

한재건씨(직할신도회 부회장) 민병준씨(세무사불자회장)를 선임했다. 중앙신도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리와 자유 평등 평화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송희정씨는 인사말을 통해 "호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제도종성의 길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송희정씨는 또 "조계종단과 중앙신도회가 정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턴뷰 4면) 중앙신도회가 창립됨으로써 재

"개혁종단 3년전 의욕 어디갔나"

재야단체, 종헌개정 개정 등에 이의

조계종 개혁 3주년을 맞아 실천불교전국총회(공동의장 청화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지난 19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개혁불사의 근본취지인 종단 자주회화 폐쇄되고 있다"고 천명했다. 실천불교회는 "선본사 직영사찰 해체 요구, 종헌개정 등 의욕을 잃고 종단개혁불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건씨(직할신도회 부회장) 민병준씨(세무사불자회장)를 선임했다. 중앙신도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리와 자유 평등 평화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송희정씨는 인사말을 통해 "호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제도종성의 길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송희정씨는 또 "조계종단과 중앙신도회가 정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턴뷰 4면) 중앙신도회가 창립됨으로써 재

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현지여행사의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며 최대 비수기로 꼽히는 4월에는 여행사도 위기가설이 나올 정도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해외여행사들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성지순례객을 유치한 뒤 현지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적자를 매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소비자보호위 서동숙국장은 "소비자들도 여행사와 계약약관을 철저히 체결하고 출발하기 전 항공권의 예약이 확정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조건이나 일정의 일방적인 변경, 안내인의 불성실의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고발조치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관광공사 고발장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폐광지 카지노 조성 월정사 토지와 무관

강원 탄광지역(1억3천만평) 개발계획에 월정사 토지 70만평은 제외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강원도청 탄광지역 개발과 최근 폐광촌 카지노 후보지로 월정사 토지인 정선군 고함읍 일지가 지정됐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며, 민항지구로 분류됐던 이지역은 이미 개발계획 단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불청 '청년호법단' 6월 발족

사찰방화 방지등 불교의회 활동 추진

해불, 사찰방화예방 등 삼보의 호를 위한 호법단이 발족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2월15일 제1차 중앙이사회를 열고 (가칭) 청년호법단을 발족키로 하고, 준비위원회의(위원장 남도의 조계사청년회장)를 구성했다. 오는 6월 21일 불청대회에서 발대식을 갖게 될 청년호법단은 해불, 사찰방화 예방 및 진상규명, 특정종교편향정책 시정 등 불교의회활동을 펼친다. 또 청년불자들의 신행혁신을 주도해 건전한 불청운동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사회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출범하는 청년호법단은 지난 17일부터 호법단의 전국망 조직을 위해 지역 각 청년회를 방문, 대원 선발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대불청 정몽정 사무총장은 "호

지난 3월18일 저녁 부산 코모도호텔에서는 어머니와 딸,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비행을 대물림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관음선행회의 회장이 팔손의 정금강행보살에서 머니리 김두상님보살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회장의 이취임이

"관음선행회 보살행 대물림"

어머니들 자비실천 딸·며느리에 인계

어머니들의 노보살님들이 행해온 보살행을 딸, 며느리들이 물려받아 윗줄에 이어가겠다는 대외적인 약속이었다(사진).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김두상님보살(53)은 지난 82년 관음선행회 회장의 딸과 며느리들을 주축으로 관음선행회를 만들어 꾸준히 숨은 선행을 해왔다. "시아머님께서는 관음선행회를 만들 때 집집마다 방문하며 기금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저희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봅니다. 어머니들의 행적



회 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87년에는 관음선행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밀양시, 11개 사찰 납골당 지원

사업비 50%씩...4월말까지 신청 접수

밀양시(시장 이상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납골안치단 및 납골분묘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1개 사찰에 납골안치단을 조성한다. 지난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압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묘지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시는 우선 총 3억8천

마음 놓고 흐를 뿐이다

한 바깥 내면이면 텅텅이 없어지고 또 견고, 한바다 하면 텅텅이 없어지고 또 생각나고 연방 그렇게 돌아간다. 보는 것 듣는 것 가진 것이 모두 그려진다. 본래로 놓고가는 것이다. 끝까지 없이 놓고 가는 중이다. 본래로 든 것이 없이 항상 놓고 흐를 뿐이다. (한여운선진)

Advertisement for Buddhist activities, including a list of items and a contact number: 0335-34-9490, 34-9491, 0342-706-3060.

Large advertisement for '장뇌산삼' (Jangnoe San Sam) ginseng products, featuring images of ginseng root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불탑다라니' (Bul-tap Darani) sutra, describing its benefits for spiritual growth and protection, with a list of items and a contact number: 0335-34-9490, 34-9491, 0342-706-3060.